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5:13-14)

목회방향

1.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의 가족 공동체.
2. 전도와 양육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2020년 3월 22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욥 1:4-16

제목 : 꽃이 피는 신앙 · 부지런한 일꾼(8)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말씀 :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욥 1:12)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

늘 아침은 좀 생각할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삶에 고난은 무엇으로 인하여 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크게 4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본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둘째는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고난이 내게도 닥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배를 탄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루는 주님에게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소경(시각 장애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소경이 된 것이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은 말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소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섭리 안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4번째는 국가적인 죄(백성들과 지도자의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보통 자연적인 재난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기근, 갑작스러운 곤충들의 공격, 유행성 질병 등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재앙이 아닐 경우엔 주변의 강대국의 공격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고난이 주는 아픔 못지않게 더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애 3:32-33입니다. “32.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히 12:11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19 사태도 감당하기가 괴롭고 힘이 들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잘 대처하면 훗날에 큰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불순종한 요나로 말미암아 배에 탔던 자들이 다 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스웨 성으로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과 정 반대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을 만나게 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을 뻔 했던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처럼 많은 자들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늘 나 하나쯤 불순종해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 요쿠하마에 정착했던 쿠르즈 여객선(다이아몬드 프린센스)에서 많은 확진 자가 나왔습니다. 거의 174명이 나왔습니다. 그 배에도 그 첫 감염자가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19도 그래서 잘 예방하셔야 합니다. 나 하나쯤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왜 불순종을 했습니까?

요나서에 기록된 니스웨 성은 앗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앗수르 제국은 매우 광대했고 그 군주들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특히 산헤립이 통치할 때가 가장 잔인했던 시기입니다.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산헤립 왕의 궁전은 가로가 180m 세로가 약 189m나 됩니다. 그 궁전에는 적어도 80개의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안에서 발견된 양각된 그림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포로들의 코나 입술에 갈고리를 꿰어 끈으로 끌고 다녔고, 눈을 빼거나 코, 귀 및 손가락을 잘랐고 더러는 불태워 죽였고 산 채로 살가죽을 벗기기도 했고 다른 포로들은 뾰족한 장대 끝에 찢려 매달은 그림들입니다. 앗수르 군주들은 그렇게 잔인한 고문을 하고 그것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런 니스웨를 선지자 나훔은 피의 성이라고 부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3:1-3에서 선포했습니다.

"1.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2. 획획 하는 채찍 소리, 웅웅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3.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

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니스웨 사람들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힌 그들에게 요나는 증오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속히 멸망시켜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니스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정말 싫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나와 기질이 같은 분에 대하여 한없이 관대하고 잘 배려합니다. 이해도 잘해줍니다. 그러나 나와 기질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분에게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와 견해가 다르면 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관대하지 못합니다. 지나고 나면 별 문제가 아닌데도 서로 다텍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처럼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니 교만이 싹튼다. 나의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판단합니다. 저런 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앗되,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특정한 나라의 백성들을 밟게 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겸손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도 저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되었다는 이런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늘 간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 이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네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 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뵈옵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부를 때마다 늘 다짐하곤 합니다. 주님의 이런 마음과 눈을 갖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바다에

큰 폭풍을 내렸습니다. 폭풍이 얼마나 강한지 배가 거의 깨질 지경입니다. 겁에 질려서 사공들은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신앙의 노력입니다.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배를 가볍게 하느라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가져온 당사자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밑층은 아마 짐칸 일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 만사가 귀찮고 그냥 케세라세라(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하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자입니까? 얼마나 나쁜 모습입니까?

그런 요나를 선장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요나가 선지자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나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장은 요나에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나에게 질문 하는 선장의 음성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오야! 교회는 세상에서의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느냐? 교회는 세상이 어지러울 땐 기도해야 한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많은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려울 때면 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삼고 기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나라가 황폐케 되고 성전이 훼파되었다는 고통의 소식을 듣자 금식하면서 애통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느1:6-7입니다. "6.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 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

느헤미야는 고국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기도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 했다고 회개를 했습니다. 고국이 당하는 아픔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은 자기와 아버지 집의 잘못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민족적인 고난의 책임을 같이 통감하는 기도입니다. 모세도 에스더도 다 민족적인 아픔과 공동체의 고통이 왔을 때 책임을 공감하면서 애통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도가 너무나 많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 용어로 <디크레센도(decrescendo)>입니다. <점점 약하게>입니다. 교회에서의 새벽기도의 소리가 점점 작아져만 갑니다. 기도원마다 밤을 세워가면서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작년 여름에 서울 근교의 수도원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장실을 들렀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청소도 안 되었습니다. 너무나 지저분했습니다. 변기를 여니 배설물이 똥똥 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변기 3곳을 열었는데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오던 곳인데 왜 이렇게 되었지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나라가 고난을 닥치면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하지 못했음을 자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19의 사태는 잠자는 한국교회로 하여금 깨어 다시 간절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선장은 기도를 부탁한 후 다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무리들이 요나에게 한 이 질문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가 말하라는 그 구절에서 무리들을 대신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성오야!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이 코로나 19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세상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교회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자기가 불순종해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우리가, 성도들은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애통하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요나의 결단 적인 말이 나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잠잠해 질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처음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이기에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풍랑이 계속 거세지니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랑이 잔잔해 지려면 교회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다에 던짐을 당해야 합니다. 아니 사회로부터 던져짐을 당하기 전에 교회가 바다 속으로 먼저 들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풍랑도 잔잔해 지게 하십니다.

교회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의미가 있으나 오늘 주제와 연관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가 2020년 사순절 기간(2.26-4.11)을 시작할 때와 비슷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순절기간동안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빠른 퇴치를 위해 기도하라는 십자가를 우리 등 뒤에 십자가 하나 더 메워 주었으니 무겁지만 힘들지만 잘 감당하자고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지은 역지의 십자가 같이 지어진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잘 감당하면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지려면 죽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정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더

라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바다 속으로 여러분 자신을 죽었다 생각하고 던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지아니하면 못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날마다 죽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찰스 링마(Charles Ringma)가 지은 책 본회퍼 묵상집이 있습니다. 새로 2판으로 출판된 책입니다. 제가 연초에 구해 매일 묵상하는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영상 사진) 이 책 1월 15일에 나오는 묵상 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는 가장 어렵지만 보람 있는 훈련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구하기보다 행하기가 더 쉽고, 가만히 있기보다 행동하기가, 듣기 보다는 말하기가, 우리에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보람이 있는 것은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소원이 꾸밈없이 드러나며 우리의 한계를 올바르게 인정하게 되고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인식하고 자신을 덜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코로나19로 고난당하는 일로 인하여 교회는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묻는 질문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말하라." 에 진솔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배부르고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애통의 기도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교만해져서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해서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향하여 미워만 했지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자라는 마음을 갖지 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정말 애통의 기도를 하겠다는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시간을 내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이 사순절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에 주님이 지어주신 기도의 십자가를 잘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그 엄청난 풍랑은 잠잠해 질 줄로 믿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은 피기 시작했습니다. 곧 부활의 계절도 옵니다. 이 코로나 19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갑니다. 스스로 기도하면서 바다 한가운데로 자신을 던지기를 바랍니다.